

## 칼빈의 성례전으로서 세례: 『기독교 강요』(1559)를 중심으로

최윤배 (장신대)

### 1. 서론

비록 프로테스탄트교회(=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 교회의 고유한 교리적 이유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세례만을 인정하는 교파가 있지만, 그것은 그 교파 나름대로 세례를 중요시하는 이유 등에서 결정된 문제이기에 이해될 수 있다. 손치터라도, 우리나라의 일부 장로교회에 내에서는 그 동안 약 500년 동안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전통으로 유지해왔던 성인세례 전에 실시하던 학습세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가 하면,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허용하는 발언을 하여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이 세례를 경시하는 현상을 볼 때, 필자는 시대적 상황에서 온 문제라기보다는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인식의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로 판단되어, 본고에서 칼빈의 성례전 중에서 세례와 유아세례에 집중하여 신학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칼빈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작품과 성례전문제로 중요한 논쟁을 벌였던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와 재세례파와 같은 종교개혁 진영, 특히 루터파의 베스트팔(Westphal)파의 논쟁도<sup>1)</sup>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본고에서 칼빈의 사상이 무르익었을 때 집

<sup>1)</sup>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황대우·김미정 역,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서울: SFC출판부, 2006), 298-304.

필된 『기독교 강요』(1559) 최종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법상으로, 역사신학적 방법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주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 논문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칼빈의 성례전에 대한 정의, 목적, 특징을 먼저 다루고, 세례와 유아세례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뒤에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 1.1. '성례'의 어의(語義)와 정의

칼빈은 '성례'라는 단어의 역사적(歷史的) 변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례'에 해당되는 라틴어 '사크라멘툼'(sacramentum)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바(엡1:9; 엡3:2-3; 골1:26-27; 딤후3:16), '비밀 또는 신비'의 뜻을 지닌 헬리어 '뮈스티리온'(μυστήριον)으로부터 번역된 단어인데, 고대교부들은 '비밀'이란 말을 쓸 경우, 위대한 일을 격하시키는 듯해서 이 말을 피하려고, 신성한 일에 관계된 '비밀'을 '성례'로 번역했다. 라틴 사람들이 '성례'(sacraments)라고 부르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신비(mysteries)라고 불렀는데, 이 두 말의 뜻은 동일하다. 성례라는 말은 숭고하고 영적인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표징들(signs)에도 사용되었다.<sup>2)</sup> 또한 칼빈은 라틴 문인들이 '사크라멘트'에 부여한 뜻과 고대교부들이 여기에 부여한 뜻이 다르다고 말한다. "고대교부들이 '사크라멘툼'이란 말을 표징에 적용했을 때, 라틴 문인들이 사용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어 거룩한 표징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해보면, 고대교부들은 이 말을 현재와 같은 뜻으로 옮긴 것은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유비(喻比)를 따른 것이다.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들은 그것을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지니는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와 같이 '사크라멘툼'은 군인이 자기의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이었는데, 고대교부들은 사령관이 군인들을 입대시키는 행동으로 만들었다. 즉, 주께서는 '사크라멘타'(sacramenta)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다.(고후16:16; 겔37:27)"<sup>3)</sup>

<sup>2)</sup>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제IV권 14장 2절(= IV xiv 2).

칼빈은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례는 우리의 신앙의 약함을 지탱시켜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선의(善意)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印)치시는 외적 표징(sign)이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그의 천사들의 면전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認證)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르게,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는 성례를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의 상호 인정과 더불어 외적 표시에 의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신적 은혜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다.”<sup>4)</sup>

## 1.2. 성례의 특징들

칼빈이 정의한 성례의 뜻을 참고하면서, 칼빈이 주장한 성례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자. 첫째, 칼빈이 이해한 성례에는 ‘하나님의 적응’(accomodatio Dei) 사상이 나타난다. “성례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에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비하신다. …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 믿음이 각종 수단들이 사용되어 사방에서 괴어 주고, 지탱되지 않으면, 믿음은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만다. 여기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의 무한한 자비로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조절하시고 (temper),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영적 축복들의 거울을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까지 자신을 낮추신다.(condescend)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항상 땅 위에 기어 다니고, 육신에 집착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sup>5)</sup>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례도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 온다. 교사가 어린 학생의 손을 잡아 인도하듯이,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알맞도록 가르치려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말씀에 의한 것 보다 더 명백

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559), IV xiv 13.

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559), IV xiv 1.

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559), IV xiv 2.

하게 확인하신다.”<sup>6)</sup>

둘째,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선포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씀은 표징을 설명해야 하며, 성례의 말씀이 성례를 선행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 없는 성례를 주장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논적들이 보통 ‘성례는 말씀과 외적 표징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의미도 없이 믿음도 없이 성례의 요소를 성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마술적 주문처럼 단순한 소음으로 속삭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가시적인 표징이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황의 독재 하에서 행해진 일은 이 신비들에 대한 무서운 모독행위였다. 그들은 사제가 축성문(祝聖文)을 중얼거리는 동안 신자들은 아무 뜻을 몰라도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sup>7)</sup> 칼빈은 어거스틴이 강조한 성례의 말씀을 인용한다. “성례에 사용되는 물질에 말씀을 첨가하라. 그러면 성물(聖物)이 되리라.”<sup>8)</sup>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도, 비교적 순결했던 교회도 성례의 말씀을 주장하여, 성례의 표징과 성례의 교환과 말씀이 분리시키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여러분은 성례가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말씀(말씀선포)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sup>9)</sup> 칼빈은 성례전의 서두에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다른 또 하나의 도움”이며, 복음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하면서도,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sup>10)</sup>

셋째, 칼빈은 성례를 인(印)치심 또는 인장(印章; σφραγίδα; seals)으로 간주한다. 인치심으로서 성례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은 재세례파와 논쟁했다. “반대자들은 이 비유를 우리가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분명히 할례를 ‘인(印)’이라고(롬4:11) 부르기 때문이다. 거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칭의를 위해서

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6.

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4.

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4.

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4.

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

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언약에 날인(捺印)하는 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명백하게 주장한다.”<sup>11)</sup> “정부문서나 그 밖의 공문서에 찍는 인장을 아무것도 쓰지 않는 종이에 찍었을 경우, 그 날인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인장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문서에 찍으면 반드시 거기에 쓰인 내용을 확인한다.”<sup>12)</sup>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을 한다. 이 점에서 성례가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은 그것이 약속을 우리 앞에 사생화(寫生畵)를 그리듯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sup>13)</sup>

넷째, 칼빈은 성례를 언약의 표징, ‘보이는 말씀’(visibile verbum), ‘믿음의 기둥’, ‘거울’ 등으로 비유한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을 ‘언약’(창6:18; 창9:9; 창17:2) 이라고 부르시며, 성례를 언약의 ‘증거’(tokens)라고 부르신다.”<sup>14)</sup> 어거스틴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건물이 기초 위에서 서 있지만, 기둥으로 괴어야만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서 있지만, 성례를 첨가할 때는 기둥으로 받친 것 같이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된다. 또 성례를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 거울 속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sup>15)</sup>

다섯째, 믿음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일지라도,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확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강화하고 증진시킨다.”<sup>16)</sup> 성례가 믿음을 증진시킨다는 사실과, 믿음이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만약 성례가 믿음을 증진시킨다면, 믿음을 일으키고, 유지하며, 완성하는 힘과 능력

1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5.

1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5.

1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5.

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6.

1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6.

1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7.

을 가진 성령은 무용지물로 주어지는 것이다.”<sup>17)</sup>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의 내적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제공하는 강화 작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며, 바로 이 때문에 믿음이 증진되고, 강화된다고 주장한다.”<sup>18)</sup>

여섯째, 성령의 효과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성령이 믿음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성령에 어떤 비밀한 힘이 영구히 내재하여 그 자체만으로 믿음을 증진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저 내적 교사(interior ille magister)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령이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의 눈에 비치는 태양의 빛이나 청각장애인의 귀에 울리는 음성과 같이 성령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성례를 구별하여,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 있고, 후자에는 그 임무만을 남긴다. 이 임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용이 없고 빈약한 것이 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힘을 나타내실 때에는 위대한 효력을 발휘한다.”<sup>19)</sup>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례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시며,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준비시키신다. 끝으로 성령께서 저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하신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대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며, 더욱 강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확인을 새김으로써 효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이다.”<sup>20)</sup> 또한 칼빈은 말씀과 성례와 성령이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만(성령의 역사) 말하는데 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 주께서는 우

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8.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0.

1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9.

2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0.

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신다. 둘째,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신다. 끝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신다.”<sup>21)</sup>

일곱째, 성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도구)이다. 칼빈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도 반대하여,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내려오며, 그 피조물들에 많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감소된다고 항의한다. 우리는 피조물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요, 심판자이시며, 따라서 그 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means and instruments)를 사용하셔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sup>22)</sup>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도구들(instruments)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일 사이를 구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23)</sup> 칼빈에 의하면, 성례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성례를 마술처럼 간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성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그들과는 성례에 일종의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sup>24)</sup> 칼빈은 성례를 구원의 선행조건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성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호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믿음과 관계없이 받아들인 성례는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속과의 관련이 없이는 성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제시하는 동시에 불신자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을 경고한다. … 마치 성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성례에 참가해야만 구원의 보장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sup>25)</sup>

2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8.

2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2.

2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1.

2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4.

여덟째, 성례와 성례의 본체(matter)는 상호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례에서 본체와 표징(sign)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분리시켜서는 안 되지만, 상호 구별은 해야 한다. 칼빈은 특별히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설명한다.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할 때 어거스틴이 자주 말한 것과 같이 성례와 성례의 본체와의 구별이 생긴다. 이 구별의 의미는 진상(truth)과 외형(figure)이 성례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본체와 표징을 구별하여,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칼빈은 무엇을 성례의 본체로 이해하는가? “모든 성례의 본체(matter) 또는 (만약 당신이 더 좋게 말한다면) 실체(substance)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주장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성을 지니며, 그를 떠나서 성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 우리가 성례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강화, 증진시키며, 그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의 풍부한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과 정비례하여 성례가 우리들 사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성례가 제시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up>27)</sup> “실체가 없는 표징이 아니라, 본체와 표징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뉘가짐으로써 우리는 유익을 얻으며 따라서 그만큼 성례에서 유익을 얻는다.”<sup>28)</sup> 칼빈은 성례에서 표징과 실체 사이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파생되는 두 가지 큰 오류를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한다. “문자를 따라 그리고 표징을 본체인양 받는 것이 노예적인 연약함의 특색인 것 같이 표징에 무익한 해석을 붙이는 것은 바른 길을 떠난 오류의 특색이다.”<sup>29)</sup> 표징의 의미와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오류이듯이, 표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케 하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오류이다.<sup>30)</sup> 동일한

2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4.

2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4.

2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5.

2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5.

2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6.



성례에 참여하면서도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에게는 성례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동일한 성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는 죽음이 주어진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음식을 받지만 성례와 성례의 힘은 서로 다르다. … 주의 떡 조각이 유다에게 독이 된 것은 그가 악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sup>31)</sup>

칼빈은 성례에서 표징과 실체를 구별하여 각각에 적당한 가치와 위치를 부여하기를 촉구한다.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특히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성례가 우리 사이에서 자리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 표징은 그 창시자이신 분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증명하는 자체의 효력을 가졌다. … 성례에 대한 이 교리가 가르쳐질 때 성례의 위엄이 높이 칭찬을 받고 그 효과가 분명하게 알려지며, 그 가치가 풍성하게 선포된다. 또 이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례에 돌리지 않을 것을 돌리거나 성례에 속한 것을 빼앗는 일이 없게 된다. 동시에 칭의의 원인과 성령의 능력이 그릇이나 수레 안에 있듯이 물질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저 그릇된 교리가 제거되고, 어떤 사람들이 간과하는 저 최고의 능력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즉, 목사가 설명하며, 외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취하시며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2)</sup>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직책,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확정된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성례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sup>33)</sup>

아홉째, 칼빈은 교회의 정규적이며, 영구적인 성례를 세례와 성찬에 국한시키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일시적인 성례에 대해서도 말한다. “성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그 성격을 논한 바와 같이

3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6.

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5.

3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5.

3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7.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히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포함한다. 어떤 때에는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시고, 어떤 때에는 기적으로 나타내신다.”<sup>34)</sup>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성례의 표징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영생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창2:9; 창3:22), 노와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무지개(창9:13-16) 등이 있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성례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창15:17),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으로 주어진 양털(삿6:37-40), 히스기야에게 뒤로 10도 물러간 일영표 사건(왕하20:9-11; 사38:8) 등이다.

열째,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하나님의 경륜과 형식상으로서 다르지만, 본질과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증거하는 점에서는 양쪽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의 성례는 더 분명하고, 더 빛나는 증거를 한다. 양쪽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것은 더욱 풍부하고 완전하게 나타내 준다.”<sup>35)</sup> 칼빈에 의하면, 구약의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성례이기에, 신약에서 세례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을지라도, 할례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성례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할례도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며, 구약의 할례 속에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경륜(dispensation)에 따라 각 시대에 맞도록 다양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다.(창17:10)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결례(레11장~15장)와 희생과 다른 의식들(레1장~10장)이 첨가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성례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이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독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마28:19; 마26:26-28)”<sup>36)</sup>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성찬은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한다.”<sup>37)</sup>

3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7.

3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26.

3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20.

3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22.

## 2. 세례

칼빈은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다.”라고 정의한 뒤,<sup>38)</sup> 세례의 목적을 두 가지, 즉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sup>39)</sup>라고 주장한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는 우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세례는 우리의 욕을 죽인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중생해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와 의 교제로 들어간다고 한다. 세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한 가지 첨가시키면 세례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상징이다.”<sup>40)</sup>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에 대한 증거와 증명이어야 한다.”<sup>41)</sup>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일생 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 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며,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을 기회와 방종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격발시킬 뿐이다.”<sup>42)</sup>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의 죄과를 알고, 피로울 때마다 단호하게 세례 받은 것을 회고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유일하고

3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

3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

4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

4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

4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3.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43)</sup> 우리에게 두 번째 유익을 주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새 생명을 보여 준다.”<sup>44)</sup>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과 죄적인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중생의 씻음과 갱신에 참여하게 된다. “이같이 먼저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轉嫁)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개조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약속된다.”<sup>45)</sup> 셋째, “우리의 믿음이 세례에서 받는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집붙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유대로서 세례를 공통분모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셨다.(마3:13)”<sup>46)</sup>

칼빈은 세례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된다. 참으로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소원을 공포하며,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라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이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모든 지체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sup>47)</sup>

칼빈의 세례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구약의 구름 기둥과 홍해바다(고전10:2; 출14:21; 민9:15) 사건을 세례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요한의 세례나 사도들의 세례를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간주한다. “우리가 논의했던 육을 죽이는 일과 깨끗이 씻는 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4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4.

4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5.

4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5.

4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6.

4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3.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다.(고전10:2)<sup>48)</sup> “같은 교훈이므로 같은 세례임을 알 수 있다. 요한과 사도들은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쳤고, 그 점에서 서로 일치했다. 즉 다같이 회개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그리스도에 게서 회개와 죄사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차이는 한 가지뿐이다. 즉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은 이미 나타나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눅3:16; 행19:4)는 것이다.”<sup>49)</sup>

둘째, 칼빈은 정결과 중생을 위한 세례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과 중생을 위하여, 이를 테면, 아버지에게서는 원인을, 아들에게서는 질료(質料)를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을 얻으며 또 분명하게 분별한다.”<sup>50)</sup>

셋째, 칼빈은 세례에서 표징과 실체를 구별한다. 세례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물질에서 영적인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영적인 것을 이런 형상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은혜가 성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의 힘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sup>51)</sup>

넷째, 세례는 구원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sup>5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다른 성례와 같이 우리는 세례에서도 믿음으로 받는 정도만큼 얻을 뿐이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는 망은의 증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에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sup>53)</sup>

다섯째, 세례는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좌우되지 않는다. 칼빈은 아무 오점도 없는 순전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조건을 가르치는 동시에 문제가 있는 집행자에 의해서 집행된 세례의 효력

4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9.

4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7.

5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6.

5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4.

5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20.

5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5.

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은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도나티스트들과 그의 당시 재세례를 주장했던 재세례파들을 다음의 주장을 통해서 논박했다. “성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가치는 성례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편지가 전해질 때 필적과 서명만 충분히 인정되면 전한 사람이 누구든지 또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 논법은 목사의 가치에 의해서 성례의 힘과 가치를 측정한 도나티스트파의 오류를 깨끗하게 반박한다. 지금 재세례파는 우리가 교황제도 하에서 불경건한 우상숭배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아무 오점도 없는 순결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 구비해야할 조건을 우리는 가르치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규정을 폐기하지는 않는다.”<sup>54)</sup>

여섯째, 칼빈은 복잡하고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잘못된 세례식을 배제하고, 올바른 세례식을 권장한다. 칼빈은 세례에 물 이외에 촛불이나 성유(聖油)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세례 받을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선 그를 회중 앞에 소개하고, 온 교회가 증인이 되어, 그를 주시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 학습교인이 배워야 할 신앙고백문을 낭송하며, 학습교인에게 세례를 준다.(마28:19). 그리고 끝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sup>55)</sup>

일곱째, 세례는 합법적인 집행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소명을 받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타인의 직책을 빼앗는 것이 된다.”<sup>56)</sup>

### 3. 유아세례

칼빈은 항상 유아세례를 주장했지만,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반대한 재세례파와의 논쟁을 통해서 유아세례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유아세례를 부정한 재세례파에 대한 비판은 그의 「기독교 강요」(1539) 재판부터

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6.

5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9.

5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22.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일부의 열광적인 사람들이 유아세례 문제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며, 선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나는 그들의 광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록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sup>57)</sup>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 목적, 즉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아세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한다. 제세례파의 주장대로, 만약 유아세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한 인간적 규례라면, 유아세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만약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유아세례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58)</sup> 또한 칼빈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30세에 세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세르베투스(Servetus)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sup>59)</sup>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언급하기 전에 칼빈은 먼저 세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세례의 의미를 요약한다. “세례의 가치와 목적, 즉 그 본질을 완전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물질과 물질적인 외형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세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례가 표현하는 내면적 신비를 생각해야 한다. 이 일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례의 견고한 진리, 즉 그 완전한 실체를 파악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외형적으로 물을 뿌리는 이유와 가치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이 일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의식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세례의 힘이 나 성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물의 의미나 가치까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세례가 주는 약속을 근거로 하여 세례의 효력과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는 우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세례는 우리의 육을 죽인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중생해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간다고 한다. 세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한 가지 첨가시키면 세례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

5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

5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31-32.

신앙을 증거하는 상징이다.”<sup>60)</sup>

칼빈은 다음과 같은 근거와 이유로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칼빈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비교함으로써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명령하신 할례나(창17:7, 10)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눅20:38; 마22:32) “약속의 언약”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나(엡2:12) 모세의 할례나(신10:15-16; 신10:15) 예언자들의 말씀(겔16:30)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에게 접근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언약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세례의 약속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영적 약속을 조상들은 할례에서 받았다. 할례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음과 육을 죽이는 것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기초라고 한 우리의 가르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기초가 되신 것도 명백하다.”<sup>61)</sup>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의 표징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칼빈은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의식적(儀式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약속은 두 표징에서 똑같다. 즉,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와 사죄와 영생이 약속되었다. 다음에 표현된 것, 즉 중생도 같다. 두 표징의 기초, 즉 이런 일들을 실현시키는 기초도 같다. 그러므로 성례의 힘과 성격을 평가하는 표준이 되는 내적 신비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차이는 다만 외적인 형식에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속과 거기에 표현된 의미이므로 이 외형적인 의식은 아주 경미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의식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할례에 속한 것이 모두 세례에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sup>62)</sup> 칼빈은 다시 한 번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교회에 처음으로 가입하

6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

6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3.

6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4.



는 것이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백성과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였으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에 참가하겠다고 고백하는 표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성별되어 그의 백성으로 인정되며, 우리 편에서도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다. 이상으로부터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며, 할례가 한 일을 세례가 우리 사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63)</sup>

특히 재세례파는 구약의 할례라는 옛 언약과 신약의 세례라는 새 언약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양자 사이의 유사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아세례를 부정했다. 여기에 반대하여, 칼빈은 할례와 세례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유아세례를 강력히 옹호했다. “첫째, 그들은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 때문에 구속과 속박을 너무 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두 표징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분리시켜서 공통점이 전연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이 두 표징은 서로 의미가 다르고 각각 포함된 언약도 아주 다르며 어린이들에 대한 소명도 같지 않다고 한다.”<sup>64)</sup> 칼빈은 바울을 인용하여(골2:11-12) “이런 말씀은 세례의 성취와 진상은 곧 할례의 진상과 성취이며, 둘은 똑같은 의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sup>65)</sup>라고 반문한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 뒤에 칼빈은 유아세례의 정당성과 실천의무를 주장한다. “그런데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나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면, 물이라는 요소와 외형적인 준수에서 그치고 그 영적인 신비에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말을 한다고(심지어 청신이 나간 말을 한다고)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신비를 설명한다면, 세례를 유아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들에게 대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sup>66)</sup> 칼빈은 구약의 할례가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졌듯이 세례도 유아들에게 베풀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것에 유아들도 참여하게 하셨다.(참17:2, 참조)

6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4.

6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0.

6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1, 참고, IV xvi 11-16.

6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5.

그렇지 않고 유아들에게 무의미한 상징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우월이었을 것이며, 이것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여호와께서 어린 유아들에게 행하시는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印)을 대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이 언약이 지금도 확고부동하게 유효하다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유아들에게 못지 않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sup>67)</sup> 칼빈은 세례를 말씀으로 보든지 표징으로 보든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씀으로서 ‘세례’가 유아들에게 해당되는데, 말씀의 부속물인 표징을 거부할 까닭이 무엇인가?”<sup>68)</sup>

구약의 할례가 폐지되었는데, 왜 지금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답변한다. “주께서 구약시대에는 그의 언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제정하셨으나, 할례가 폐지된 후에도(우리와 유대인 사이에 공통된) 주의 언약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만이 다르다. 그들을 위해서 할례가 하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는 세례가 대신한다.”<sup>69)</sup> 칼빈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창17:12, 14; 속9:2; 사6:13; 고전7:14)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오늘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한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직후에 외적인 성례로 유아들에게 그 언약을 인치하고 명령하셨다.(창17:12) 그런데도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확인하는 인을 치지 않겠다는 구실은 무엇인가? 사도들은 이전에 할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던 일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세례가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sup>70)</sup>

둘째,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말씀(마 19:13-15)을 근거로 유아세례를 주장한다. 유아세례를 반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본문과 유아세례는 상호 관계가

6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5.

6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5.

6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6.

7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6.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 준 것이지, 세례를 준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아를 축복해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유아세례 반대자들의 위의 주장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복음서 기자는 어린 아기와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른다.(눅18:15; 마19:14; 막10:13, 참고) 이 두 마디의 헬라어는 젖먹이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온다.’는 말은 ‘접근한다.’라는 뜻을 사용했을 뿐이다.”<sup>71)</sup> “그리스도께서 유아들을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그의 뜻을 행동으로 확증하셨다. 유아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왜 세례도 받게 하지 않는가?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친교의 상징이 아닌가? 천국이 유아들의 것이라면 왜 표징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가? 표징은 이를테면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며, 교회에 가입된 그들을 천국의 상속자들 가운데 가입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유아들을 우리가 쫓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장식하시는 유아들에게서 그 은사를 빼앗으며 그가 기꺼이 영접하시는 어린이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와 그리스도의 이 행동이 아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례(이것으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을 성별케 하셨음을 선언하신 그 행동보다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sup>72)</sup>

셋째, 칼빈은 가족 전체가 세례 받은 사실을 통해서 유아세례를 주장한다. 유아세례 반대자들은 사도들이 유아세례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록 복음서 기자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유아들을 빼놓는 것이 아니므로, 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기사를 근거로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리가 옳다면, 사도 시대에 여자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없으므로 주의 성찬에서 여자들을 제외해야할 것이다.(행16:15, 32)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범칙

7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7.

7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7.

으로 만족하자. … 유아들에게서 세례를 빼앗는 것은 곧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sup>73)</sup>

넷째, 칼빈은 유아세례의 무용론에 반대하여, 유아세례의 유용론을 주장하는 바, 유아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들과 세례를 받는 유아 자신들에게 유익과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생각을 압도하는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도는 우리의 믿음에 특별한 위로를 주며 무익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날인(捺印)과 같이 어린이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주께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인애와 은총을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천 대에 이르기까지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출 20:6) 확인되었다고 선언한다.”<sup>74)</sup>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가 자녀들에게 미치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확신을 얻도록 분발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주의 언약의 자녀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생긴다. 동시에 어린이들도 세례에서 유익을 얻는다. 교회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얼마만큼은 더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달을 나이가 되기 전에 엄숙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영접을 받았기 때문이다.”<sup>75)</sup>

다섯째, 유아들은 어려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아세례 반대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유아들에게도 중생의 은혜를 주실 수 있으며,<sup>76)</sup> 성령은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안에서 역사하신다고<sup>77)</sup> 주장한다. “그들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아들이 어떻게 중생하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유아들을(어떤 유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으므로) 주께서 먼저 중

7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8.

7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9.

7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9.

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7-20.

7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1-22.

생시키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78)</sup>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태하신 것은 육을 취하시며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얻는다면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는 유아 시기가 성화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실 것이다. … 하나님의 능력이 유아들을 중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대로 유아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권능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불완전한 논법일 것이다.”<sup>79)</sup>

유아들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나는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믿음을 받는다는지 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지식을 가졌다고 경솔하게 단정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은 채 남겨 두기로 한다.”고 말한다.<sup>80)</sup>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음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세례를 회개와 믿음의 성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아들은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의해 그 씨가 그들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81)</sup> 세례의 실체가 먼저 오고, 세례의 표징이 나중에 온다는 논리를 펴는 유아세례 반대자들에게 유아세례의 경우 칼빈은 세례의 표징이 먼저 오고 실체가 나중에 온다고 반박한다. “주께서 선택하시기로 의도하신 유아들이 중생의 표징을 받았으나 장성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주만이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장성해서 세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갓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중생의 표를 주어 일평생 그 뜻을 명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새로워지겠다는 열의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sup>82)</sup> “그들은 실체가 표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틀린 생각을

7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7.

7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8.

8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19.

8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0.

되풀이 한다. 이는 할례의 진상도 선한 양심의 동일한 증거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아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양심의 증거가 할례의 진상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할례는 장래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신다. 따라서 유아세례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현재적인 효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sup>83)</sup>

여섯째, 칼빈은 유아들에게는 세례의 표징을 회개와 믿음 보다 먼저 적용하고, 성인에게는 회개와 믿음을 먼저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사도행전 2장 37-38절을 근거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유아세례 반대자들에게 칼빈은 이 성경구절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므로, 유아세례에 적용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 인용된 구절이 그 예다. 베드로와 빌립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하며, 믿음을 이해할 만한 나이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유아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할례의 표를 받기 전에 먼저 여호와와의 언약과 율법을 배워야 했다. 할례에 의해서 언약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는 민족적으로 외인(外人)이었기 때문이다.”<sup>84)</sup>

칼빈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성인과 유아의 차이를 설명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창15:1; 창17:1) 성례가 믿음 다음에 있었고, 이삭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성례가 먼저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언약에 대해서 외인으로서 장성한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했으므로 먼저 언약의 조건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공정한 처사였지만, 그의 갓난 아들은 사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들은 약속의 내용에 따라 상속권에 의해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다.<sup>85)</sup> “장성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

8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0.

8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1.

8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3.

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므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믿음과 회개가 있기까지는 그들에게 세례를 휘장(徽章)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난 유아들은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sup>86)</sup>

일곱째, 칼빈은 세례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세례를 구원의 절대적 필수조건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례를 멸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멸시한다면 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며,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세례를 받을 능력을 빼앗긴 사람은 멸망한 것으로 곧 인정해야 할 만큼 세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뿐이다.”<sup>87)</sup>

여덟째, 유아들에게 성찬이 하락되지 않을 바에는 유아들에게 세례도 허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세례는 유아에게 허락되어야 하지만, 성찬은 회개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례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일종의 입문식이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가하게 된다.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한다는 표징이며, 중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그러나 성찬은 유아기를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다. … 이 구별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세례에 대해서는 주께서 일정한 연령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성찬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시지 않고, 다만 주의 몸과 피를 분간하며, 자기의 양심을 검토하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 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신다. … 세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할례는 유아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다.(창 17:12) 그러나 성찬으로 대체된 유월절에는 아무 손님이나 무분별하게 참가시키지 않고, 그 뜻을 물을 만한 나이가 된 사람들만이 합당하게 먹을 수 있었다.(출12:26)”<sup>88)</sup>

8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4.

8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4.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26.

칼빈은 유아세례의 유익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유아세례에서 얻을 수 있는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이다. … 사탄이 이렇게 큰 군대를 동원해서 유아세례를 공격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놓인 약속도 결과적으로 점점 더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sup>89)</sup>

#### 4. 결론

우리나라의 일부 장로교회는 물론 기독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세례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인식의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필자는 본고를 시작했다. 칼빈에 의하면, ‘성례’(sacramentum)라는 단어의 의미가 역사적(歷史的)으로 다양하게 변천했다. 그러나 칼빈은 “성례는 우리의 신앙의 약함을 지탱시켜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선의(善意)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印)치시는 외적 표징(sign)이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그의 천사들의 면전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認證)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르게,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는 성례를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의 상호 인정과 더불어 외적 표시에 의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신적 은혜의 증거라고 부를 수가 있다.”<sup>90)</sup> 라고 분명하게 정의한다.

칼빈이 이해한 성경에 근거를 두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서, 그 특징은 매우 다양하다. 칼빈이 이해한 성례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적용, 말씀의 우선성, 인치심, 언약의 표징, ‘보이는 말씀’, 신앙, 성령의 효과 등 다양하지만, 특별히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칼빈은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

8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30.

8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i 32.

9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iv 1.



다.”라고 정의한 뒤,<sup>91)</sup> 세례의 목적을 두 가지, 즉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을 주기 위함.”<sup>92)</sup>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세례가 주는 신앙의 유익을 세 가지를 말하고, 세례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지만, 특별히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발견되는 세례를 미신화할 정도의 이상화할 정도로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아야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유아세례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의 입장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똑같았지만, 특히 재세례파와의 논쟁을 통해서 유아세례를 더욱 강조하고, 변호했다. 그는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성경과 유용성의 관점 등에서 찾았다. 가령,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연속성, 예수님의 간난아이에 대한 축복, 가족 전체가 세례 받은 사건, 유아세례의 유용성,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등을 통해서 칼빈은 유아세례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칼빈의 성례론, 특히 세례론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평가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본 칼빈의 세례론은 세례에 사용되는 물질 자체나 표징과 상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물질의 이상화에 이를 수 있는 객관주의적 성례전주의자들과, 세례 속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성을 무시하는 일부 주관주의적 영성주의자들(spiritualists) 중간에서, 세례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신앙을 통한 세례의 효과와 신자의 신앙결단이라는 양쪽 요소가 통전적(holistic)으로 잘 결합되어 나타나는 균형 잡힌 성례전 내지 세례에 대한 이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칼빈의 성례론, 특히 세례론은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일부 기독교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독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동시에 교회일치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다.<sup>93)</sup>

9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

9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V xv 1.

93)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제3집(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pp. 207-229.

[ 참고문헌 ]

-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제3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pp. 207-229.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7.
- de Greef, W.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황대우·김미정 역.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서울 : SFC출판부, 2006.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 Wendel, François.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제IV권(CO, 라틴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한글판 참조)

[ Abstract ]

Calvin's Thoughts on Baptism as the Sacraments according to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59)

Yoon-Bae Choi (Dr. theol.)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thesis treats of John Calvin's thoughts on Baptism according to hi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59). For this reformed reformer his teaching on the Baptism begins to develop when he comes into conflict with his opponents: against the Papacy on the hand, and against the Anabaptists on the other hand.

When at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sacraments of the Jews in the Old Testament were abrogated, two sacraments were instituted which the Christian church now uses,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We have in this sacraments another aid to our faith related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ccording to Calvin, the first point is that the sacraments should serve our faith before God; after this, that they should attest our confession before men. Baptism is the sign of the initiation by which we are received into the society of the church, in order that, engrafted in Christ, we may be reckoned among God's children. Baptism was given to us by God for these ends: first, to serve our faith before Him; secondly, to serve our confession before men. Baptism brings three things to our faith. The first thing that the Lord sets out for us is that Baptism should be a token and proof of our cleansing. Baptism also brings another benefit, for it shows us our mortification in Christ, and new

life in Him. Lastly, our faith receives from Baptism the advantage of its sure testimony to us that we are not only engrafted into the death and life of Christ, but so united to Christ Himself that we become sharers in all His blessings. For Calvin it is very important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in the Sacraments. Because the Holy Spirit transmits the outward words and sacraments from our ears to our soul.

Against the anabaptists who rejects Infant Baptism, Calvin insists that “since in this age certain frantic spirits have grievously disturbed the church over Infant Baptism, and do not cease their agitation, I cannot refrain from adding an appendix here to restrain their mad ravings.”(Inst. 1559, IV xvi 1) He finds the foundations on Infant Baptism in the Holy Scriptures and he does not reject it on account of its usefulness.

[ **Key words** ]

Calvin, Sacraments, Baptism, Infant Baptism, Reformed, Presbyterian